

속지마세요
잘못된 식의약정보

벌꿀, 이렇게 달라요!

벌꿀과 사양벌꿀의 차이 & 구별법



벌꿀 vs 사양벌꿀

최근 식약처에서는 사양벌꿀을 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7개 업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는데요.

벌꿀과 사양벌꿀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부분이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를 알려면, 벌꿀과 사양벌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벌꿀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저장해 만든 꿀

벌꿀 가격
약 4~6만 원/kg

≠



사양벌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만든 꿀

>

약 3배

사양벌꿀 가격
약 1만 5,000~2만 원/kg

기르는 과정의 차이는 물론 가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품유형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는 당연한 불법 인데요!

사양벌꿀은 식품유형을 반드시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도 표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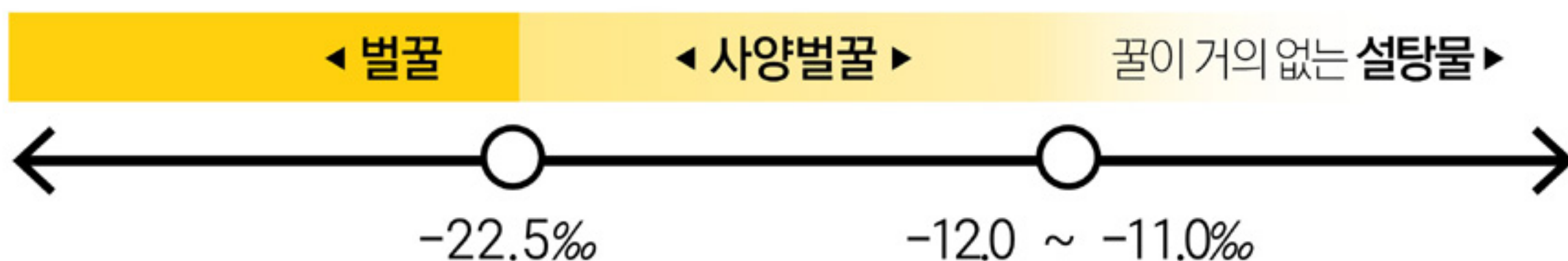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양벌꿀이 마치 꽃꿀 등을 채집하여 만든 벌꿀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사양벌꿀 안내 문구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꿀 구입 전, 식품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사실, 벌꿀과 사양벌꿀은 색과 맛이 비슷해 전문가도 구별이 어렵습니다.

탄소동위원소비율



다만,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해 식품유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벌꿀 구입 전, 식품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벌꿀

식품유형 표시 : 벌꿀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

사양벌꿀

식품유형 표시 : 사양벌꿀